

# 4~5월 이상 저온에 80% 줄어든 벌꿀 수확 농업재해 인정될까

### 양봉농가 경영난 넘어 생계마저 위협 담양군, 정부에 경영안정 지원 건의

벌꿀 수확량이 급감했다. 평년보다 80% 가까이 줄어들었다. 이는 지난 4~5월 이상저온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양봉농가는 벌꿀 피해가 이상저온의 직접 피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농업재해 대상에서 제외돼 경영난을 넘어서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다. 이에 담양군이 지난 2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양봉농가 경영안정 지원을 긴급 건의했다.

28일 담양군에 따르면 군이 담양지역 양봉농가를 대상으로 올해 벌꿀 수확량을 표본 조사한 결과, 양봉 1통의 수확량이 1.9kg(1만 7810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년 8.7kg(8만 1560원)보다 무려 78.2% 줄어든 수치다.

이는 지난 4월말 이상저온으로 밀원수(벌이 꿀을 빨아오는 나무)인 아카시아 나무 꽃대에 냉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또 본격적인 채밀(採蜜=꿀을 뜬)기간인 5월에는 잦은 강우와 저온현상으로 채밀이 이뤄지지 않아 벌꿀 수확량이 급감한 것으로 분석됐다.

채밀량 급감에도 지원 제도가 없어 양봉농가는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담양의 한 양봉농가는 "꿀을 따야 할 시기에 날씨가 좋지 않아 보통 때보다 20%밖에 벌꿀을 수확하지 못했다"면서 "수익도 크게 줄어 더 이상 양봉을 할 수 없을 지경"이라고 답했다.

실제 양봉은 자연재해에 따른 직접 피해가 아닌 간접 피해인 탓에 농업재해에서 제외돼 정부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다.

현행 농업재해 관련법에는 농수축산물 및 농업시설 등이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가 있을 경우 그 피해 정도에 따라 작·간접 지원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상저온에 따른 배 과수 피해 등은 지원이 가능하지만, 밀원수 피해로 인한 벌꿀 수확량의 감소는 2차 피해인 탓에 농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담양군은 양봉농가의 경영안정 지원 방안을 정부에 촉구했다.

담양군 관계자는 "이상저온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벌꿀 수확량이 크게 감소해 양봉농가들이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양봉농가 같은 피해도 자연재해로 인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해 근본적인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가축재해보험 보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에 양봉농가 지원을 건의한 최형식 담양군수는 "양봉 산업은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화분매개 기능을 통한 자연생태환경 및 경관 보전 등 공익적 가치가 높은 중요 산업"이라며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봉농가의 지원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지역 양봉 현황은 3186농가가 28만여 통의 벌을 사육하고 있다. 이 중 담양지역은 132농가, 1만 6437통이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담양=노영찬 기자 nyc@kwangju.co.kr



여름날 보라빛 추억 만들기 28일 오전 광주시 북구 문흥동 '천지인' 문화소통길에 피어난 맥문동을 배경으로 시민들이 사진 찍으며 여름날의 추억을 만들고 있다. 북구는 각화사거리~용봉IC까지 4.73km 구간에 천지인 문화소통길 산책로를 조성하고, 문화근린공원 구간에 맥문동을 심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광주 동구 비대면 온라인 어린이 독서 프로그램 운영

광주시 동구가 코로나19에 따른 도서관 폐쇄 장기에 대비해 온라인을 이용한 새로운 독서프로그램을 마련했다.

28일 동구에 따르면 동구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맞춰 초등생을 대상으로 하는 비대면 양방향 온라인

여름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도서관 휴관이 장기화되면서 방학을 맞은 학생들에 대해 비대면 독서지도를 통해 책과의 친밀감을 형성해줄기 위한 것으로 실시간 양방향소통이 가능한 화상채널

'ZOOM(줌)'을 통해 운영될 예정이다. 스마트폰이나 PC 등을 이용한 참여도 가능하다.

프로그램은 ▲생각 토크! 글쓰기 ▲생각플러스! 글쓰기 ▲나도 발표왕! 자신감 스피치 ▲위기를 극복하는 역사인물 리더십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모집인원은 프로그램별 8명으로 선착순 마감이다. 동구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뜨거워지는 한반도... 21세기말 폭염일수 3.5배 ↑ 사과 재배지 사라지고 강원도에서만 글 재배 가능

### 기상청·환경부 한국 기후변화 보고서

온실가스를 현재 추세대로 계속 배출할 경우 21세기 말 폭염일수가 3.5배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의 지표면 온도는 전 지구 평균보다 빠른 속도로 상승했고, 이대로 가면 더는 한국에서 사과를 생산할 수 없게 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와 같은 내용은 28일 기상청과 환경부가 공동 발간한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0'에 담겼다. 보고서는 한반도를 대상으로 2014~2020년 발표된 1900여 편의 국내외 논문과 보고서의 연구 결과를 분석·평가해 한국의 기후변화 동향과 전망을 집대성한 것이다.

◇ 지표면 온도-해수면 꾸준히 상승...폭염·열대야 빈도 ↑ =보고서에 따르면 1880~2012년 전 지구 평균 지표면 온도가 0.85도 상승한 반면에 우리나라는 1912~2017년 1.8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계 시기가 일치하지는 않지만, 더 짧은 기간 온도가 더 많이 오를 셈이다.

연평균 기온은 1980년대 12.2도, 1990년대 12.6도, 2000년대 12.8도, 2011~2017년 13.0도로 꾸준히 올라 온난화가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1970년대 이후 한반도 폭염일수는 10년간 0.89일씩 증가했고, 여름철 밤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인 열대야 발생일수는 이보다 많은 0.96일씩 늘었다. 특히 2010년대 중반 이후 불철 이상고온 현상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했고 2000년대 이후에는 여름철 폭염이 급격히 증가했다.

◇사과 재배지 사라지고 감귤은 강원도에서만...질병 발생 가능성=온실가스 감축 노력 정도에 따라 21세기 말에는 우리나라의 지표면 온도는 2.9~4.7도 오를 것으로 추산됐다. 강수량은 3.3~13.1%, 평균 해수면은 37.8cm~65.0cm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기후 변화는 우리나라 생태계 분포와 종, 재배작물에 변화를 주고 질병 발생을 높이는 등 사회 전 부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했다.

현재 추세대로 온실가스가 배출될 경우 폭염일수는 현재 연간 10.1일에서 21세기 후반 35.5일로 3.5배 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2090년 벚꽃 개화 시기는 현재보다 11.2일 빨라지고, 2080년대 소나무숲은 지금보다 15%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벼 생산성은 25% 이상 감소하고 사과 재배지는 사라질 수 있다. 감귤은 강원도 지역까지만 재배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 광주교육청 예산편성 내달 28일까지 시민 의견수렴·설문조사

광주교육청이 2021년 예산편성에 시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의견수렴 및 설문조사를 오는 8월28일까지 실시한다.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설문은 ▲교육격차 해소 ▲교육과정 및 학력신장 ▲특수 및 유아교육 지원 ▲안전한 학교 조성 ▲기타 교육재정과 관련된 사항 등 18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시 교육청은 시민의 의견 및 설문조사 결과를 2021년 예산 편성 때 예산 운용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내년 예산에 중점 투자 방향

및 투자 우선순위 등을 파악해 내실 있는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다. 2020년의 경우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실 응급콜벨 설치, 혁신학교 지원, 안전한 학교생활, 학교시설 노후화 개선 사업 등의 의견을 예산에 반영했다.

관심있는 시민·학부모·학생·교직원들은 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설문조사(광주광역시 교육청 참여마당→시민소통→시민참여예산제) 또는 바로가기 서비스→시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할 수 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 광주기독병원, '진료정보교류사업 단위거점 의료기관' 선정

광주기독병원이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2020년도 진료정보교류 기반 구축 사업을 수행할 단위거점 의료기관으로 선정됐다.

진료정보교류사업이란 의료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환자(국민)에 대하여 본인의 진료기록을 원하는 의료기관에 전자적 방식으로 안전하게 송수신, 의료진이 환자 진료에 참조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이 사업으로 의료기관 종별, 지역과 상관없이 네

트워크 형태로 이 사업에 동참한 전국의료기관과 정보교류를 통하여 CT, MRI 등 영상정보 및 환자 진료기록을 전자적으로 교류, 병원을 옮길 때마다 환자가 일일이 종이나 CD로 진료기록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게 됐다. 또한 환자가 의료기관을 옮기더라도 환자의 과거 약물 알레르기 반응 등을 확인하지 못해 발생하는 약물사고 등 오진을 예방함으로써 환자 중심의 안전한 치료와 처방이 가능하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 유은학원 100주년 기념관 역사자료 수집

유은총동문화 및 동문인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유은학원 100주년 기념사업회에서는 2021년 5월 26일에 100주년 기념관 개관에 맞춰 14만 동문들의 소중한 역사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100년사 연감 제작을 위한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유은가족 및 동문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학교 및 교육 발간 책자

- 학교 교사(校史), 학교 요람, 학교연혁지, 교육계획서, 학교문집, 교육활동철
- 새교육 등 교육관련 각종 잡지, 학교 신문, 교지, 학교 발행 간행물 등
- 교과서, 교사용 지도서, 부교재 등

### 기록자료

- 사진, 회화, 앨범, 영상자료, 졸업식, 입학식, 운동회 등 각종 행사 사진 및 자료
- 학교 배경의 개인 기념 사진이나 그림, 졸업 앨범 및 우승 트로피, 메달, 상장
- 학습지도안, 학급경영록, 시험지 및 답안지, 성적표, 통지표, 학교일지 등

### 학교 물품과 서류

- 졸업장, 수료증, 급여 봉투, 고지서, 영수증
- 학교 상징물, 교기, 교가, 교훈, 배지, 상장함, 깃발
- 각종 교구 및 기자재, 타자기, 초기형 컴퓨터, 환풍기 등
- 운동회 용품, 호루라기, 매스게임 물품, 모의 수류탄 등

### 학생물품

- 교복, 체육복, 교련복, 이름표, 모자, 가방, 주산, 학생증, 교표, 도서관 대출증
- 도시락, 일기, 방학생활, 학급 문집, 동아리 문집 등
- 기타 자료 등

### 접수처

광주동성고등학교(광주상업고등학교) 행정실 062)670-4512, 광주여자상업고등학교 행정실 062)670-4532

## 광주동성고(광주상고), 광주여상고, 광주동성중, 광주동성여중

# 학교법인 유은학원 100주년 기념사업회